

# 8차 집단교섭, 3차 제시



6월 8일(목) 14시 동양피스톤에서 2023년 집단교섭 8차 교섭이 열렸다. 사측 10개 사업장 19명, 노동조합 11개 사업장 54명이 참가했다.

## 6월도 중순이다

이규선 지부장은 “벌써 6월 중순, 이제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적극적인 안 제시를 촉구했다.

조희수 말레동현 상무는 “공동요구 관련 성실히 토론, 문구를 정리했고 일부 사업장은 임금안도 제시. 부족하지만 논의된 내용 중심으로 안을 제시한 점 이해 바란다”고 답하며 3차 제시안을 냈다.

지난 7차 교섭(6.1 우창정기)에서는 사측이 1) 임금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 2) 통일요구의 일부만 안을 제시하고 ‘중앙협약을 따른다’는 문구로 제시, 3) 기 합의된 노안교육을 신규 사업장에도 확장하는 요구안에 대해 오히려 기 합의를 후퇴시키는 제시안 등이 논란이 되었다. 임금 또한 사업장 조건별로 낼 수 있는 만큼이라도 안을 내 교섭을 진전 하자고 했다.

8차 교섭에서 사측의 3차 제시안이 나왔다.

## 임금, 3사 3만

임금인상안은 10개 사 중 대한솔루션, 대원산업, 현대케피코 3개 사만 안을 냈다. 모두 3만원, 현대케피코는 호봉승급분 포함이다. 물가인상 등 경제상황과 요구안 대비 부족한 안인데다 3개사 밖에 안을 내지 않았다. 차기에 모두 안을 내기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 노동안전 교육, 원안 수용

노동안전교육 조항은 사측이 원안을 수용했다. 기존 집단교섭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최근 합류한 사업장들이 부담을 표했었는데, 원안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조합은 감사를 표했다.

## 고용안정, 사 “다소 부담” 노 “털고 가자”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존 협약에서 ‘협의’를 ‘합의’로 바꾸는 요구에 대해 사측은 “각 사별 규정이나 합의가 있고, ‘근로조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기존 ‘협의’로 하더라도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현행유지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새로운 내용 아니고, 대부분 사업장이 유사 조항이 있음. 임금 본격 다루기 전에 이런 부담 없는 내용들은 정리하고 갔으면 한다.”며 내용 상 큰 차이가 없으니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은 중앙교섭에서 제시한 문구들을 그대로 담았다.

차기에는 진전된 안과 더불어 임금안의 적극적인 제시를 당부하며 교섭을 마치고, 동양피스톤 현장 순회를 진행했다.

차기 교섭은 6월 15일(목) 에스제이엠에서 열린다. 교섭 후 전체 교섭위원 교육 및 단합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